

제3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① 57
25

학교	다낭 외국어 대학교	성명	Phan Thi Thuy Dung	학년	3	생년월일	1992년 10월 10일
----	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나를 구해 주었던 그 마음!
 인간은 세상에 살아 가면 서 단 한 번
 도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. 이 우
 개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대담을 할
 수 있다. 인간이니까, 나도 똑같다. 한
 번 아님 여러 번으로 실수, 잘못을 했다.
당신은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 냈어
 나 같지는 않을 거예요. 생각하지만 그 것을
 못지 않게 당신을 용서해 주는 사람도
 아님. 꼭 도와주고 생각한다.
 나에게는 굉장한 추억이 있다.
 몇 년 전에도 그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
 마음엔 창피함, 부끄러움, 미안함이 가득
 채웠는데 이제는 감사가 많이 남을 뿐이다.
 어릴 때 나는 공부들을 꽤 잘했다.
 매번 학교에서 전교 1등 내 이름은
 불려 줄 때마다 내가 그 개를 들고 업
 청 나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랑을 했다.
 그런데 가끔 내가 세상에 서 제일 난
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들고 고만이 생겼다.
 나보다 공부 못하진 못하진 못하진 하고
 전에서 나보다 잘하는 것이 없는 독생
 자라 마지못했다. 내가 더 잘했으니

제3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학교	성명	학년	3	생년월일	1992년 10월 10일
다낭 외국어 대학교	Phan Thi Thuy Dung				

까.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대회에 나가
 서 상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. 그 때
 서 파티를 해야겠다고 우리 아빠 엄마
 에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. 그 날에 내
 동생이 많이 아팠다. 부모님이 나에게
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동생만
 돌보았다. 그 때 나를 무시할 당항다고
 생각해서 엄마아빠에게 소리를 질렀다.
 “그 못된놈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
 신경써?”

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무리 부모님이
 의연국포정이 이상해졌다. 누워있던
 내 동생이 나를 보고는 물었다.
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
 생겼다. 우리아빠가 나보고 잠깐 얘기
 하자고 하시면서 나를 끌고 밖에서 나갔
 다. 아빠가 한참조모하시려고 이상한
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. 동생이 아
 프다고, 오늘은 수심해야한다고, 수심을
 심패하면 동생이떠나버릴수있다
 고. 나는 아무말도안했다. 아니, 못했
 던 것이다. 그 때 한 순간에 떠오른
 동생에 대한 추억때문이였다. 만날 나
 람 높고 싶다고 하면 따라가 날 내
 동생이 귀찮다고 생각만 했고, 나보다

제3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학교	다남 외국어 대학교	성명	Phan Thi Thuy Dung	학년	3	생년월일	1992년 10월 10일
----	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잘 하느 것이 없다고 만날 날도 이라고
 동생은 무시했던 나, 그 순간 내가 잘
 못했다고 느꼈다. 나를 정말 미워했다.
 수줍은 끝나고 한 달 후에야 내 동생
 이 깨어났다. 미안하고 창피한 나는 동
 생 얼굴을 보러 못 갔다. 내가 조용해
 리고 엄마 아빠에게 처벌을 받으려 하
 는 말을 드리고 내 친한 친구에게도
 미안하다고 편지를 보냈다. 동생에게만
 아 무 말도 못했다. 나를 어떻게 용서해
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나도 답을 할
 수 없었으니까. 며칠 후에 내 동생이
 퇴원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나를 먼저
 찾아왔다. 내가 좋아하느 장비를 잘
 삼이 들고. 누나가 상을 받았다는 걸
 축하하라고 했다. 나는 거기서 울었다.
 그날 이후로 내 성경이 많이 변했다.
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지는 나는
 모른지만 내 동생이 나에게 준 그 마
 음이 꿈용이라고 생각한다. 어린 아이가
 나에게 그 미음을 주면서 나를 구했
 다고 생각한다. 만일 내 동생이 나를
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까지
 못 모리도 모른다. 죄책감 때문에 내

